

연금 시장 리뷰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미국 경제 회복 조건과 전망- 과거 경제위기 극복 경험과 시사점

퇴직연금

- 동향 :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
- 이슈 : 고령화, 성혁명시대의 부모-자녀관계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8월말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11월 기준금리 2.75%로 동결

- 한국은행은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4/4분기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 기대감을 표명 하면서 기준금리를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75%로 동결
 - 기준금리 동결: 기준금리는 2011년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뒤 13개월 만인 2012년 7월 3.0%, 10월에는 20개월 만에 2%대로 떨어져 2.75%로 유지되고 있음
 - 경기 둔화 추측: 국내 수출 경기 회복, 주요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미국·중국 등의 경제 지표 회복세, 12월 대선 등이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침
- 하지만, 물가안정,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 등이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연결될 수도 있음

○ 금융 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혼조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절벽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은 혼조세를 나타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월 24일 2.81%에서 11월 9일 현재 2.79%로 소폭 하락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10월 24일 1,105.5원에서 11월 9일 현재 1,087.5원으로 18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결과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10월 24일 1,913.9에서 11월 9일 1,904.4로 9.5p 하락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10월24일	11월9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3.6	4.2	3.4	3.4	3.4	2.8	2.4	-	-
	산업생산(%)	7.0	10.6	7.2	5.3	5.3	4.2	1.5	0.7	-
	소비자물가(%)	4.0	4.5	4.2	4.8	4.2	3.0	2.4	2.0	2.1
	실업률(%)	3.4	4.2	3.4	3.1	3.0	3.8	3.3	2.9	-
	경상수지(억달러)	276.5	26.1	54.9	69.0	126.7	25.6	111.4	23.6	60.7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2	3.80	3.68	3.60	3.41	3.45	3.39	2.81	2.79
	원/달러(원)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31.3	1,152.1	1,103.5	1,087.5
	코스피지수(P)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2014.0	1,854.0	1,913.9	1,904.4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2/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10월 24일은 9월, 11월 9일은 10월 수치임.

□ 경제 이슈: 미국 경제 회복 조건과 전망

- 과거 경제위기 극복 경험과 시사점

■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미국경제

미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발굴하지 못한 채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2011년 4/4분기 4.1%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 1/4분기 2.0%, 2/4분기 1.3%, 3/4분기 2.0%에 불과한 수준으로 경기 회복 불투명성이 상존해 있다.

■ 미국의 시기별 경제위기 극복 과정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이전에 발생했던 4차례 경제위기 극복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공황기(1929~1939년)기에는 대규모 경기부양과 2차 세계대전 특수(1939년)가 시작되면서 제조업이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 경제를 견인해 왔다. 부동산과 내구재 소비 붐 붕괴로 다우존스지수가 1929년 10월 24일과 29일 두 차례 폭락, 1933년에는 예금지급정지은행이 4,000개 이상에 달해 금융공황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193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3.1%, 실업률은 20%대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한편, 뉴딜정책과 2차 세계대전 특수로 인한 제조업 급성장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맞은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 중심의 세계 최강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둘째, 1, 2차 오일쇼크(1974~1984년)기에는 레이거노믹스(1983~1988년)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변화와 이로 인한 경제의 서비스화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국제 유가는 1974년 배럴 당 7.58달러로 전년 대비 2.7배 상승하였고, 1979년에 다시 29.75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하였다.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을 치른 미국은 군수서비스 수지 적자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누증되는 가운데 제조업 경쟁력도 독일과 일본에 추월당했다. 단, 레이거노믹스로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와 금융업 중심의 경제 서비스화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셋째, 주택대부조합 파산(1990~1991년) 시에는 IT 투자 붐, 나스닥 붐, 인터넷 보급 확산 등 New Economy의 등장이 위기 극복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 남서부 원유 생산지역 경제 악화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빠짐에 따라 저축대부조합의 용자가 부실화되면서 위기에 봉착하였다. 1980년대에는 연평균 485개 이상의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하여 저축대부조합의 예금보험제도인 연

방저축대부보험공사가 1989년에 파산한 것이 경제 위기로 전이되었다. 이후 미국 경제는 냉전 종식을 배경으로 한 저금리, 재정적자 축소, 자본유입 가속 등에 의한 투자 확대와 IT 관련 벤처, 주식 등에 대한 투자 붐으로 호황을 맞았다.

넷째, IT 버블 붕괴 및 9·11테러(2001년)기에는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 저금리정책, 주택금융완화 등에 따르는 부동산 붐과 금융산업의 급격한 확장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미국 연방금리는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 1% 전후까지 하락하였으며, 부동산 시장도 2000년대 중반까지 급격히 확대되었다. 금융업의 경우 1986년에 對 GDP 비중이 금융업을 상회한 이후 1999년에는 이윤도 제조업을 능가, 2000년대 중반까지 급증했다.

■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 위기 극복 요인 점검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과거 경제 위기 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기극복 요인은 부실 부문의 구조조정, 재정 지출 확대, 신산업의 등장과 같은 3가지**이다. 현재 미국 경제가 이들 3가지 요인들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의 원인인 부동산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은 완만하나마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주택 판매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기존주택 재고 청산기간이 5.9개월로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현상은 신규주택 시장 부문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 S&P 주택가격지수도 2012년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편, 2010년 157개에 달했던 금융기관 파산 규모가 최근 47개로 급감했고, 2008년 적자를 기록했던 금융업 이익도 2011년에는 위기 전 최고 수준인 2006년 약 2,864억 달러의 82.7%(2,368억 달러)까지 회복되는 등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확장적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된 상황으로 재정 지출 여력이 크지 않지만, 최근 미국 내는 물론 외부에서도 재정절벽 회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IMF가 미국에 대해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실제 FRB도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하여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위기 전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여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셰일가스 개발 붐 등 신성장 산업의 등장도 기대된다. 셰일가스 산업의 발전은 투자와 고용은 물론 막대한 세수 창출 효과를 통해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GDP 창출효과는 2015년에 2011년 미국 실질 GDP의 0.9%에 해당하는 약 1,182억 달러로 추정될 뿐 아니라 286억 달러(2011년 재정적자 규모의 2.2%)의 조세수입도 기대

되는 등 미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처럼 최근 미국 경제는 위기극복을 위한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판단된다. 단, 셰일가스 산업의 리딩산업화 등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아직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회복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당분간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 상의 정책 대응은 물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경기 진작 노력과 동시에 국내 금융시장 급변동 방지 등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 기조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내수 확충 등을 통해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경제 내 고용 창출력 증대, 부동산 등 실물자산시장의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내수 확충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이 가속되어야 한다. 신성장동력 발굴 및 투자 확충, 사회적 자본 강화,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기업투자 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넷째, 미국의 셰일가스산업의 발전은 국내 관련 기계·장비 수출뿐 아니라 비전통에너지산업부문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정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 동향: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 (10/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요약)

○ 기본방향

- 퇴직연금이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 마련
- 중소기업·개인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상품선택권 제고 등 가입자 보호강화

○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

- 가입자 수급권 보호, 고금리·역마진 경쟁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 원리금보장 상품 편입 한도(현행 70%)를 50%로 낮추고 향후 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축소

○ 퇴직연금사업자간 상품교환 활성화

- (현황·문제점) '11.12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규제 도입에 따라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을 교환
 - 그러나, 동일업권내 또는 고금리 상품제공기관간 맞교환(Barter)을 통해 고금리·역마진 영업을 지속하는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 반감
- (개선방안) 원활한 상품교환을 위하여 특정사업자간 맞교환을 방지하고 자사 상품 편입규제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과도한 상품제공 대가요구를 제한
 - (맞교환 방지) 사업자별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¹⁾를 설정 하고,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 제공 최대한도²⁾ 설정
(단, 적립금규모가 1천억원 미만인 퇴직연금사업자 제외)
 - 1) 직전년도말 기준, Max(운용관리계약적립금, 자산관리계약적립금)의 50% 이상
 - 2)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규모를 연간 총상품제공액의 10% 이내로 제한
 - (상품제공수수료 제한) 상품제공수수료를 일정수준*(20bp) 이내로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동수수료를 폐지
 - * 실제 평균 퇴직연금수수료 수준과 상품교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

○ 불합리한 수수료체계 개편

① 장기가입자 수수료 할인

-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할인제도를 도입토록 하여 퇴직연금의 장기계약을 유도(은행권 일부 旣 도입)

② 영세기업 및 개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문제점)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고, 개인가입자의 은퇴자산 확충 등을 위하여 도입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 수준이 운영방법이 유사한 확정기여형(DC)보다 전 반적으로 높음
- (개선방안)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유도

③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 (현황·문제점) 사업자별 수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비교가능성이 낮고, 사업자별 수수료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
 - * 적립금단위 부과방식(매년 수수료 수취)과 부담금단위 부과방식(부담금 납부시점에 수수료 수취)이 있으며 적립금단위 부과방식도 적립금 구간별 요율 적용방식이 상이
- (개선방안)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단위 부과방식으로 통일하고 각 업권별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 시스템 구축 (현재 적립금 수준에서 최저 수수료를 One-Stop 조회 가능)

○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 (현황·문제점) DC·IRP의 경우 주식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금지 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 운용규제가 해외사례 등과 비교시 과도하게 엄격
- (개선방안) 주식형·부동산펀드 등 제한적 투자허용(DC·IRP)

- (주식형·혼합형펀드) 주식에 대한 총투자한도가 가입자별 적립금의 40%인 점을 감안하여 DC·IRP에 대해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
 - (부동산펀드) 부동산펀드중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한하여 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40%이내에서 투자를 허용(단,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 펀드 등은 제외)
- * 평균수익률 비교 : 임대형펀드 : 6.9%(‘12.2말) / 정기예금(1년) : 최고 4.1%(‘12.9말)

○ 영업질서 건전화

① 퇴직연금 모집인 감독 강화

- (현황·문제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으로 불완전판매 및 과당경쟁 우려
 - * 퇴직연금사업자는 보험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모집업무, 제도설명, 민원처리 업무 등을 위탁 가능
- (개선방안) 모집질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집인제도 도입초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규 유치 급증 등 특이사항 발생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기획검사 실시

② 계약체결 강요(꺾기) 등에 대한 감독강화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건전 모집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게 하고 점검을 의무화
 - * 계약체결 강요행위 적발시 해당 기관 및 임직원을 엄정히 제재할 예정
- 또한, 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금지대상을 명확화
 - *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출유사행위 및 증권·보험사의 신용공여도 포함
-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 금지

□ 이슈 : 고령화, 성혁명시대의 부모-자녀관계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점차 길어지지만 이러한 평균수명 증가가 가족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가족관계의 전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로, 즉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살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역할 수행 기간도 길어진다는 의미이므로, 부모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부모역할에 대한 수행이 기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모세대와 비교해서 자녀들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부모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며, 성평등에 대한 요구도 높다. 게다가 출산율의 감소로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향상되면서 자녀들은 삶의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경험하며, 부유해진 가족에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더 많은 성취를 위해 자원을 투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를 위한 과도한 교육열은 자녀들의 친구관계도 제한하고, 자녀수의 감소로 형제관계도 제한되면서 자녀들의 정서적인 동료애에 대한 경험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과 직업 및 경제적 성취에 더 많은 기회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과보호와 희생적인 부모역할의 결과는 자율성과 독립성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녀들을 학자들(Gerson, 2003)은 “성혁명 시대의 자녀”로 명명한다.

높은 교육수준과 부모로부터의 경험을 통해 성혁명의 자녀들은 일을 통한 성취와 가족을 통한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모두 요구하지만, 성인이 된 뒤 현실에서 이들의 높은 이상과 기대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이 이루게 될 가족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긴장과 갈등은 높아지고 미래의 가족에서 이혼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들의 자율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부양의식 등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그 변화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혁명시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시대의 부모들에게는 기존의 양육, 교육방식으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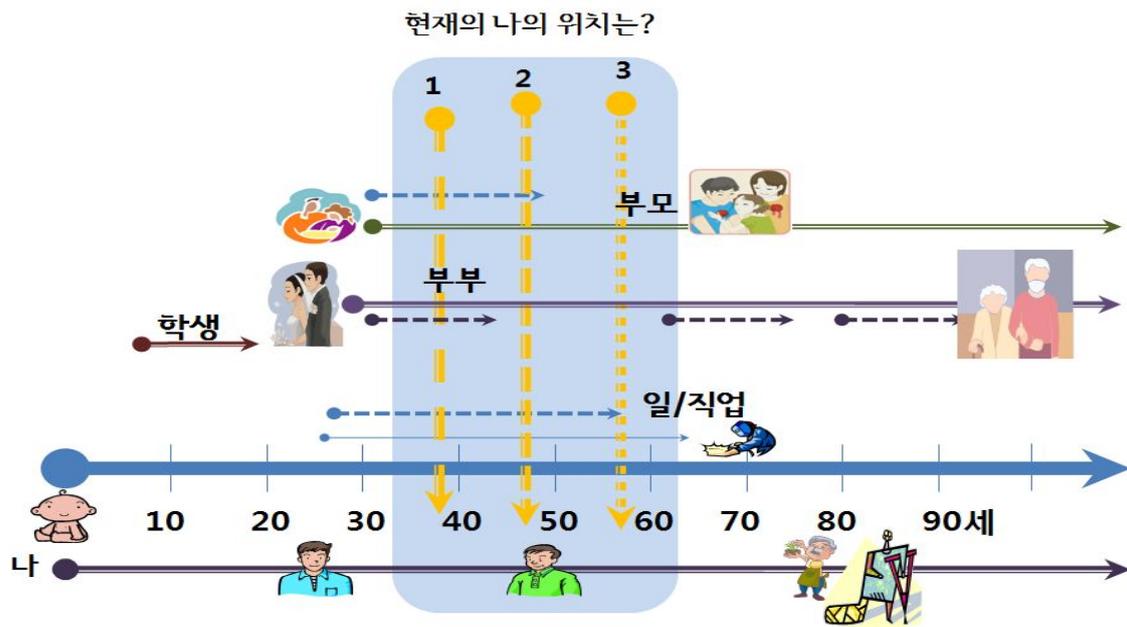
길어진 생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은 단기적으로 대학입학만을 위한 교육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수 있도록 양육하여야 하며, 부모들 스스로도 자녀들만을 위한 삶, 자녀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투자를 생각하여야 한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배려와 상호존중의 양육행동을 하고, 동시에 상호존중하며 배려하는 좋은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애과정의 변화와 부모 역할의 변화

- 1975년 이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점차 증가하여 2008년 남자는 76.54세, 여자는 83.29세로 증가하였음. 인구학자들은 향후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함.
- 그러나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가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음. 따라서 <그림 1>에서 현재의 나의 위치를 기초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 보아야 함.

<그림 1> 생애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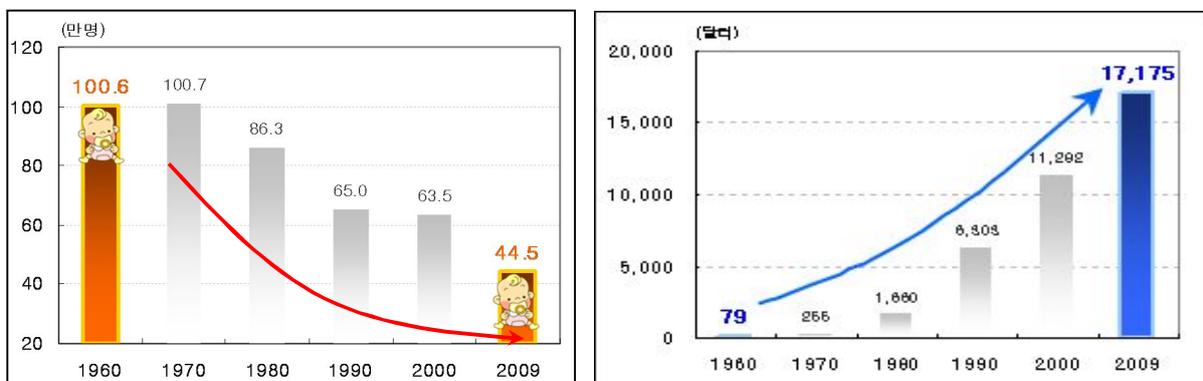


- 생애과정에서 개인은 학생, 부부, 부모, 직장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이러한 다양한 역할 중에서 가장 긴 인생의 관계와 기간은 일과 직업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됨.
- 즉, 가족관계의 전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부모들은 이전과는 다른 역할 수행이 요구됨.

○ 정보화 시대 “성혁명 시대”에 성장한 자녀들

- 부모세대와 비교해서 자녀들은 1) 정보화시대에 살면서 삶의 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였으며, 2) 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높고, 3) 출산율의 감소로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와 풍요를 경험하며, 4) 부유해진 가족에서 부모들도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면서 자녀들은 부모세대와는 다른 경험과 기회를 갖게 됨.
-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하는데, 1) 가족수의 감소 특히 자녀수 감소로 형제관계에서의 친밀한 동료애에 대한 경험이 제한되고 2) 교육, 직업 및 경제적 성취 등의 기회 이면에는 반대로 양극화도 경험하게 됨. 이러한 자녀들을 학자들은 “성혁명 시대의 자녀”로 명명함.
- 구체적인 예를 들면, 1989 년 \$5,556 이던 우리나라 1 인당국민총소득(GNI)은 2010 년 20,759\$로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월평균소득도 3,841 만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임 (통계청, 2011 한국의 사회지표)
- 부모들의 99.8%는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통계청, 사회조사, 2011), 2011 년 현재 대학진학률은 72.5%에 이룸
- 부모들도 가계계승을 위한 의무적인 출산에서 벗어나, 1980 년대 평균 3- 4 명의 자녀에서 2005 년에는 무자녀(7%), 자녀 2 명(44%), 1 명(16%), 3 명 이상(34%)으로 자녀의 수는 계속 감소 추세이며, 가임여성 1 명당 합계출산율도 2009 년 1.15 로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2> 1960 년 이후 출생아수와 1 인당 국민소득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와 오늘 (p. 4))

- 부모의 교육열은 기러기가족을 포함한 분거가족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타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의 증가로 이어져, 2010 년 전체가구의 15.1% (국내 13.6%, 국외 1.8%)의 가구가 분거가족이며, 이들 중 82.8%가 미혼자녀가 타지에 살고 있는 유형임
- <표 1>과 같이 이들의 분거이유는 국내는 58%가 직장 때문이지만, 국외의 66.6%가 학업으로 인한 이유임.

<표 1> 분거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이유(가구주, 복수응답: 단위 %)

	계	소계	따로 살고 있는 이유						
			직장	학업	가족간 불화	건강상 이유	자녀교육 지원	군대	기타
2010	15.1	100.0	56.3	38.5	4.3	2.4	2.6	10.0	1.5
국 내	13.6	100.0	58.0	34.5	4.7	2.6	1.8	11.0	1.3
국 외	1.8	100.0	33.9	66.6	0.6	0.2	8.2	-	2.7
배 우 자	4.4	100.0	67.5	5.9	7.5	5.8	9.0	1.8	2.6
미혼자녀	12.5	100.0	47.9	44.7	3.0	0.8	-	11.4	1.1

*자료: 통계청(2011). 2010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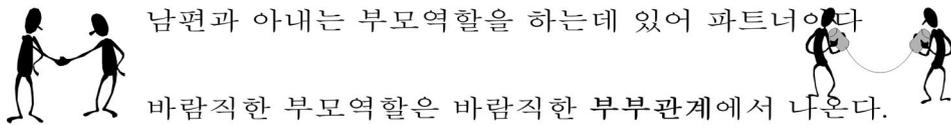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 높은 교육수준과 부모로부터의 경험을 통해 성혁명의 자녀들은 일을 통한 성취와 가족을 통한 친밀감에 대한 욕구도 함께 높지만, 이들의 높은 이상과 기대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이 부족할 때는 결국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오며, 배우자와의 긴장도 증가하게 됨. 결국 이혼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러한 성혁명시대의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양육과 교육방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됨.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할 수행이 요구됨.
- 실제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는 이미 변화되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녀 출가 후 삶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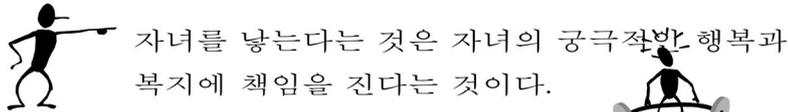
-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많은 변화가 있음: 부모들은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34.7%),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24%) 자녀와 같이 살지 않음 (2012, 고령자통계)
 -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현재 부모세대의 동거형태를 보면, 부모만 따로 사는 경우 (62.8%)가 자녀들과 함께 사는 비율(35.3%)보다 높음(통계청 사회조사, 2011)
 - 부모부양에 대해 자녀들은 “부모 스스로 해결”(12.7%), “가족”(36%), “가족과 정부사회”(47.4%), “정부사회”(3.9%)로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반면, 65 세 이상 도시지역 고령자들 중 약 42.7%(농어촌지역, 34.3%)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40.2%)과 건강문제(39.8%)임.
- 점차 개인화되고 정서적인 소외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또한 길어진 생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살아가는 것임. 이를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수 있도록 양육하여야 하며, 부모들 스스로도 자녀들만을 위한 삶, 자녀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함.
-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녀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배려와 상호존중의 부모자녀관계를 갖는 것을 강조하며, 동시에 상호존중하며 배려하는 좋은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희생, 언행의 일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의 행동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놀랍게도 자녀들은 허용적이고 희생적인 부모보다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권위가 있는 부모에게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함. 부부가 함께 <그림 3>의 부모역할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동반자적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부모역할의 특징

남편과 아내는 부모역할을 하는데 있어 파트너이다
 바람직한 부모역할은 바람직한 부부관계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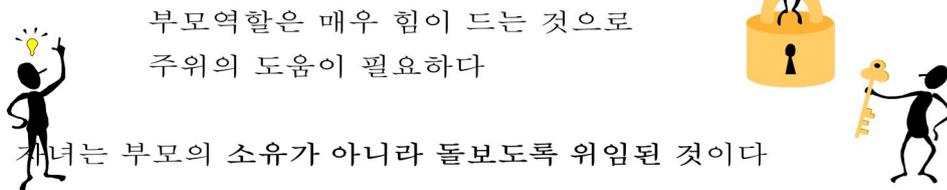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자녀의 궁극적인 행복과
 복지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부모역할은 매우 힘이 드는 것으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돌보도록 위임된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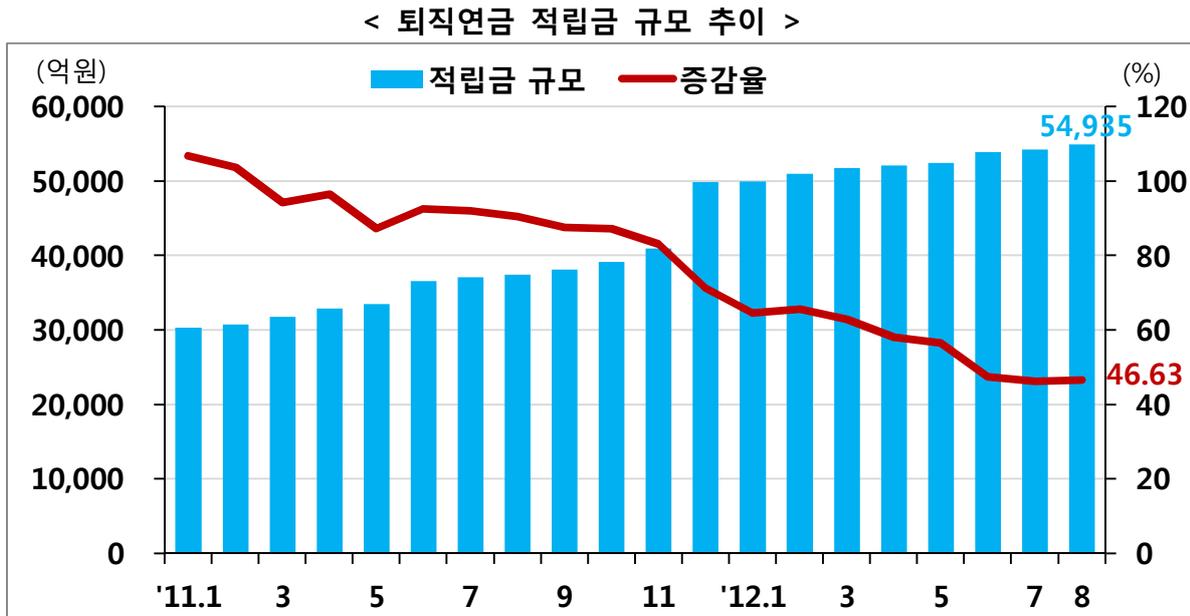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상명대학교 정현숙 교수, 가족학 박사 (02-2287-5215, hschung@smu.ac.kr)

□ 퇴직연금통계 (2012년 8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8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4 조 9,350 억원으로 전년동기 (37 조 4,649 억원) 보다 17 조 4,702 억원 (46.6%) 증가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80,350 개소로 전월(172,888 개소) 대비 7,462 개소 증가
- 총 사업장(1,519,850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1.9%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108,246	46,669	18,754	4,847	792	1,042	180,350
(B)전체 사업장수	1,273,047	178,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A/B, %)	8.5	26.2	34.3	44.2	55.6	80.6	11.9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올바른 전문가 사용설명서

사회가 전문가에 대해 기대하는 것으로 최소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일반인들보다 깊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인들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동서양 모두에서 “과연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공자(公子)가 남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이나 유사한 개념으로 모아지면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차이가 통상적인 지식의 깊이에 있지 않을지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전자의 기대가 퇴색된 데 반해 아직 후자의 기대는 버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마저도 의심해봐야 한다는 과학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10월 17일자 Science Daily가 소개한 미국의 보스턴대학교에서 있었던 실험이 좋은 근거가 된다. 연구자들은 하버드, MIT 그리고 예일 대학교와 같은 명문대학 출신의 화학자, 지질학자 그리고 물리학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실시했다. 그 골자는 과학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실수인 관찰된 자연 현상에 대해 인간의 시각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론적인(teleological) 판단을 어느 정도로 이들 과학자들이 자주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나무는 동물들이 숨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소를 생산한다(실제로는 나무는 산소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고 동물은 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이 목적론적인 주장은 틀린 것임)” 혹은 “지구는 스스로를 자외선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오존층을 만들었다(실제로는 오존층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지구상의 생물들은 이런 환경에 적합하게 진화해 이런 목적론적인 주장은 틀린 것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는 맞았는지 혹은 틀렸는지를 대답하도록 했다.

비교를 위해 실험대상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에게는 즉시 응답하도록 했고 다른 집단에는 대답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주었다. 연구자들은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높았지만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시간적인 압박 하에 있었던 과학자들에서 위와 같은 어떤 과학자가 보아도 거짓인 주장에 대해 참이라고 답한 사

람이 확실하게 많았던 것이다. 이런 시간 제약이 가져오는 효과는 같은 연령대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교 학부 졸업자들 곧, 일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같은 방식의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정확도에 있어서 이들 일반 지식인들이 과학자들에 분명 뒤졌지만 시간 제약이 주어졌을 때 판단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역시 목격되었던 것이다. 보스턴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이런 뜻밖의 결과가 나온 이유를 인간의 진화적 특성으로 돌렸다. 곧, 인간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모든 자연현상에서 그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믿음이 과학보다는 더 손쉬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절박할수록 더 그러기 쉽고 이런 경향성은 종종 과학교육이나 훈련도 압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위에서 언급한 지식 혹은 앎에 대한 정의는 전문가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인지”보다는 “무엇이 아닌지”가 더 합당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보스턴대학교의 연구는 이 대답의 정확성이 주어지는 시간에 비례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를 종합하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정답보다는 정답이 아닌 것들을 찾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전문가 사용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도 인간으로서 과학보다는 믿음에 본능적으로 손이 먼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혁신이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의미한다.

-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1909-2005): 오스트리아 태생 미국의 경영학자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